Be Healthy, Be Happy

인하대병원

2018 **0102** | Vol.127

신년특집 남자간호사 1만 명 시대, 미스터 나이팅게일 | **Special People** 휠체어 타고 진료하는 의사 박성민 전공의

미루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마음 힘든 감정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일로 연장하면
또 다른 하루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스트레스를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을
그날그날 정리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낀다 보고 싶다는 말
또한 미루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쌓아놓으면 배가 될 거 같지만
시간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미하 |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중에서 | 삶과지식

Contents

인하대병원

Be Healthy, Be Happy

01 + 02

2018 January + February Vol.127

06

24

28

04 **신년사**

06 **| 신년특집 |** **남자간호사 1만 명 시대, 미스터 나이팅게일**
08 남자간호사 Talk! 미스터 나이팅게일 토크
12 우리도 한마디 알파걸? 알파고? 간호사계의 알파맨!!!

16 **Health Touch 1** 조혈모세포 기증 – 간절한 환자들의 희망이 되어
18 **Health Touch 2** 조혈모세포란 무엇인가?

20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17 – 경동
24 **Special People** 휠체어 타고 진료하는 의사 박성민 전공의
26 **INHA Post** 공기정화식물 – 미세먼지 잡는 초록의 힘

28 **INHA Focus 1** 제2터미널 공항의료센터 개원
30 **INHA Focus 2**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32 **Change the INHA** 인하대병원 Excellent 환자경험 Festival
34 **톡톡 약물상담** 탈모 예방을 위한 영양소와 치료제
35 **병원 탐방** 효성요양병원 김수임 병원장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39 **Info Desk**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건강교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보 2018년 1·2월호(통권 제127호) **발행일** 2018년 2월 1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 홍보팀 **디자인** 테크포스 **인쇄** 금강프린텍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하대병원 교직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첫째, 병동 스크린도어 설치를 통한 병문안 문화 개선
둘째,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확대 운영으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확대로 환자서비스 개선
넷째, 암통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암환자 진료서비스 지원 강화
추가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5병상 확충,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의료센터 개원을 위한 노력과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는 등 우리는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빚어낸 값진 결과이며, 병원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8년 우리는 환자의 편의성과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고객의 가치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병원 환경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 입니다.

첫째, 의료정보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임상의사결정 지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진 만족도 제고
둘째, 호흡기 전용 병상 신설, 병동 및 외래 리모델링, 2~3층 간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등 병원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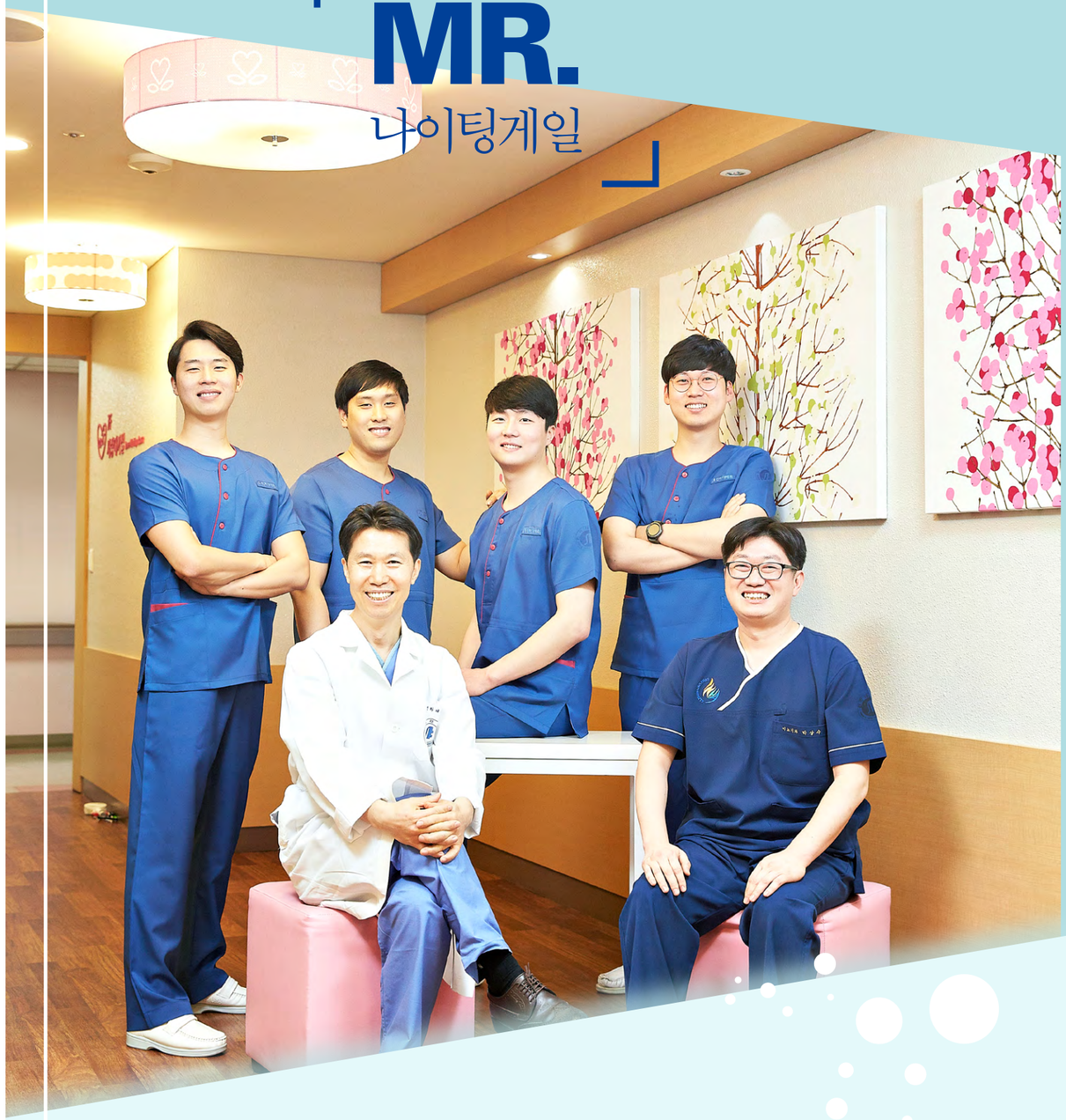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하대병원 가족 여러분께 업무의 효율성과 환자안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길 바랍니다.
또, 환자의 안전이 병원의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과 우리 교직원 모두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항상 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의료원장 김영모

MR. 나이팅게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오늘까지만 '남자간호사',
우리는 그냥 간호사입니다!!

남자 간호사 1만 명 시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남자간호사인 '표 간호사'가 있었고
최근 의학 드라마 '굿닥터'의 곰돌이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따뜻한 의리파 남자간호사 탤런트 '고창석'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있다.
오늘까지만 '남자간호사'라는 이름을 허락한다는,
'그냥 간호사'이고 싶은 성별만 남자인 그들의 솔직한 토크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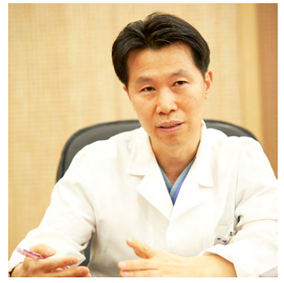
사위 삼고 싶은
병원 곳곳의 훈남 간호사와 함께

솔직, 용감한 남자간호사들의 이야기

남자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힘을 쓸 일이 많이 생기는 수술실 · 응급실 · 중환자실 뿐 아니라 병동에서도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호사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부터 병원에서 힘쓸(?) 일이 있을 땐,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할 땐 벅차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시간까지...
곳곳에서 빛나는 인하대병원 남자간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_ **이수연**(간호본부장) / **박응구**(수간호사/중앙공급실) / **박상수**(비뇨기과 전담간호사)
김정한(내과계 중환자실) / **김현빈**(동10병동) / **이경술**(응급의료센터) / **조윤형**(서12병동)
진행 · 정리_ **이정희 에디터** 사진_ **송인혁 실장** / 다뷰스튜디오

이수연 간호본부장_ 유일한 홍일점(?) / 간호본부



박응구_ 96년 입사 우리 병원 최초 남자수간호사 / 중앙공급실

진행자 오늘 토크 주자로 선발되셨는데, 어떤 이야기보따리를 풀어주실지 기대됩니다.

박응구 우리 병원의 남자간호사들이 병원보에 실린다고 하니 설레기도하고 잘 대변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박상수 우리 이경술 선생을 보면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꼭 누구를 비교하지 않아도 응급실 환자들이 아픈 게 싹 나을 거 같아요. 훈남 후배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수연 본부장 여기 훈남 간호사는 제가 직접 면접을 봤죠. 제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수부서에만 배치되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병동으로도 많이 배치되었죠. 남자 환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분위기도 좋아요.

우여곡절, 각양각색으로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

박상수 고3 때 600명이 한 학년이었는데 간호학과를 선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남자간호사를 처음 보았고 인상에 남더라고요. 남자학교에 간호학과 홍보 책자를 보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간호학과 소개 책자가 온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아 이건 내꺼다!' 싶었죠.

김현빈 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고3때 맹장 때문에 인하대병원 11층에 입원했는데 굉장히 잘해주신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감명 깊게 느꼈고,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죠.
부모님이 적극 지지해주셨고, 간호학과를 가려고 재수까지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여동생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수연 본부장 남매가 함께 우리 병원 간호사라니 참 고마운 일이네요. 조윤형 선생은 멀리 전주에서 우리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조윤형 인하대병원은 '혁신병원, 선도병원'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고 워낙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병원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이수연 본부장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하면서 힘든 거 있을 거 같아요.

남자라서... 그냥 간호사입니다!

조윤형 남자간호사라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환의를 갈아 입혀야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는 걸 꺼리실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배설량을 체크하는 것도 불쾌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를 놓을 때도 무조건 남자라서 서툴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에게 '저, 주사 잘 놓는 간호사' 라고 말해요. 그래야 안심하고 편한 마음으로 맡기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 그러다 한방에 성공 못하면 어쩌죠?

조윤형 잘못 놓으면 '아 혈관이 좋은 혈관이 아니네요.', 한 번에 잘 놓으면 '이거 봐요. 저 잘 놓는다니까요~' 합니다(일동 웃음). 환자 안심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말에 대한 책임 때문인지 진짜로 주사 잘 놓아요.

이수연 본부장 간호사는 주사를 잘 놓아야 인정을 받죠. 조 선생의 그런 자신감이 곧 주사 실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경술 응급실의 경우는 내 가족이 먼저고 내가 제일 아픈 거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경증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다치지 않도록 두루두루 한다는 게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김정한 사실 저는 남자인데 손목이랑 손이 가늘어서 콤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일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동도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 중환자실 내과계는 진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 바쁨 속에서 일하고 있는 '나' 를 느끼는 것이 좋은데 생각보다 세분화 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케어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같은 환자여도 매일 매일이 새

박상수_ 2001년 입사 / 비뇨기과 전담간호사

김정한_ 2015년 입사 / 내과계 중환자실

이경술_ 2017년 입사 / 응급의료센터

로운 증상이어서 아직도 짬짬이 공부하고 있어요.

김현빈 수술 후 체위를 바꿔주거나 보행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거운 환자들은 거의 저를 부르세요. 특히, 나이트 때는 보조요원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헬스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일동 박장대소).

김정한 확실히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웃음). 중환자실은 특히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무겁고 환자분이 어디 움직이실 경우에는 산소장비를 꼭 착용하시는데 산소통은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 입사했을 때 부서에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해결하면 역시 잘 들어왔다 싶어 뿌듯하고(어깨 으쓱) 약간 치얼업도 됩니다.

늘어나는 미스터 나이팅게일, 사윗감으로 굿!

박상수 그래도 요즘은 간호대학에 남학생이 꽤 많죠. 입학을 했는데 50명 중에 저 혼자만 남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1~4학년까지 남자는 저 혼자... 혼자 있는 저를 외면하지 않는 동기들의 수많은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모교였던 인하대병원을 지원했고 실습할 때 제일 좋았던 중환자실에서 시작해서 많은걸 배웠어요. 이후 비뇨기과 전담간호사 자리가 있어서 옮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박응구 저는 고3때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간호학과 지원했어요. 어머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아프실 때 병원을 모시고 다니니까 지금은 고맙다 하세요. 저는 간호대를 다닐 때 실습, MT갔을 때 많이 외로웠어요.

이수연 본부장 예전에 비하면 남자간호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건 맞아요. 아직 더 많이 변해야 하겠지만 말예요. 여기 참석한 선생님들은 여자 친구나 아내로 간호사를 선택할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정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랑 결혼하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진행자 이성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간호사'라는 직업을 당당하게 소개한다?

참석자 일동 "네!" (웃음)

이수연 본부장 저는 남자간호사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여기 박응구 선생님은 1년 전 수간호사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연차와 실적이 쌓여야 받는 직책이니만큼 기존의 남자간호사들의 롤 모델과 희망이 된다 생각합니다.

박상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원이 11명이 안돼서 전국 남자간호사 축구대회에 출전하려면 다른 병원에서 빌려오기도 했어요. 다른 팀들은 선수 교체도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이제 우리도 1,2,3군까지 있으니 든든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 간호사인 우리도 쉽지 않아

이경술 처음 독립했을 때 제가 담당한 환자분이 죽어가는 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 마주하다보니까 많이 복잡한 생각도 들고 상실감, 무력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어떤 환자분이 급성 알레르기반응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된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약 빨리 줘서 살았네요!' 하시는 말에 뿌듯하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김정한 이상하게 애정이 가는 환자가 있어요. 보호자분은 매일 새벽기도 다니시며 잠깐이라도 들러 가셨는데, 한번은 100일 됐다고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사실 100일 동안 중환자실에 머문 일이 축하할 일 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100일 동안 살아계셨다는 거니까요. 직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랑 농담도 하고 필요한 게 뭔지 불편한건 뭔지 묻고 했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망처리 후 영안실 보내드리고 멍하니 앉았는데, 제게 첫 사망환자이기도 하고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굉장히 허전했어요.

제가 아니라 좀 더 숙련된 분이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생기고, 그일 이후 다른 분들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마음가짐을 새로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운 정 들은 장기 입원환자의 발톱을 깎아주다!

조윤형 간혹 장기입원 하시는 환자분 중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입원 수칙을 무시하고 금식도 거부하고 수술 후 피주머니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침상 안전을 무시하고 심지어 소변통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간호사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 환자분 때문에 여러 간호사 쌤들이 우셨고 솔직히 빨리 퇴원하시기를 바랐지만 치료에 비협조적이셔서 결국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하고 총 석 달을 뵙게 되었죠.

그런데 미운정도 정인지 정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50대 중후반 되시는 환자였는데 저한테 욕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도 어차피 매일 들어야 할 욕, 말이라도 편하게 하자 생각했고 끌려 다니기 싫어서 반말도 섞어가며 응대했어요.

하루는 그분의 발을 보게 되었는데 발톱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드렸어요. 원래는 '야야!' 라고 부르셨는데 '윤형아, 고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석자 일동 놀람과 박수

조윤형 석 달 동안의 응어리가 정말 확 풀리더라고요. 이런 한마디에 이게 다 풀리나 싶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퇴원 후 병원에 왔다가 저희 병동에 오셔서 저한테 '잘하고 있지?' 하며 물으셨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 일입니다. 이제 웬만한 환자의 경우는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일하면서 좋았던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을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 부드러운 게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자이고, 그냥 간호사입니다!

박상수 대한 남자간호사 협회에서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실다지기만 했으나 앞으로는 대외적으로나 병원에서도 향후 교류를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간호사, 와이프도 간호사, 아이들도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간호사를 선택한다고 하면 응원하고 싶어요. 네 가족이 다 간호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김현빈 환자가 원하는 걸 먼저 파악해서 물어보면 오히려 일이 빨리 끝난다고 알려준 선배 간호사가 있어요. 먼저 물어보고 친절하게 하니까 일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친절함이 간호사를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박응구 그동안 계획만 잡고 실천을 못했는데 공동의식을 갖고 헌혈을 단체로 하는 등 봉사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남자간호사협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할 계획인데 우리 인하대병원에서 선도적으로 할 겁니다.

이경술 '더 프로페셔널한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조윤형 저희부터 인식을 바꾸어 이제 한명의 간호사로서 당당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한 남자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간호사라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들한테도 남자가 아니라 그냥 간호사인 거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이수연 본부장 인간에 대한 사랑 뿐 아니라 친절하려는 마음, 본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멋진 간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호사로서 사명을 갖고 여기 인하대병원에서 자리를 딱 잡고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임상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김현빈_ 2016년 입사 / 동10병동

조윤형_ 2017년 입사 / 서12병동

이수연 간호본부장의 따뜻한 격려의 마음은 회식비 금일봉으로 마무리 됐다. 참석자 모두는 함성과 박수로 답했고, 꼭 회식비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로서의 선후배 동지애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제, 인하대병원 간호본부에는 '간호사'만이 있을 뿐이다. 다만, 성별이 달라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간호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신께서 허락한 영역이니 우리가 거스를 명분은 없다.

그들은 어떻게 남자간호사란 직업을 선택했을까?
남자간호사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만의 어려움과 즐거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간호사의 생활,
미스터 나이팅게일을 꿈꾸는 평범한 남자들의
'나도 한마디'를 들어보자.

간호사라는 직업은 금남의 성역이 아니다!

알파걸? 알파고? 간호사계의 알파맨!!!

임학천 / 내과계 중환자실

–

진정제를 투여하고,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환자를 보면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강찬욱 / 동10병동

–

남자간호사라는 편견을 버리고 간호사라고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연 / 서10병동

–

친절하다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뿌듯한 반면 남자간호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환자가 있을 때는 아직 사회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 동11병동

–

소록도 봉사활동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간호사를 결심. 남자간호사도 똑같은 의료인으로 봐주세요! 간호사로서 독립하던 첫날 환자의 CPR 상황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송호정 / 동12병동

–

2018년에는 에러 없이 감동과 건강만 주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파이팅 입니다!

최규원 / 서12병동

–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점이 훌륭하고 멋있어보여서 간호사를 지원했습니다.

조은규 / 서15병동

–

남자간호사에게 간호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 꼼꼼히 환자를 잘 보니까 믿고 맡기셨으면 합니다. 임종 환자의 보호자가 마지막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 억제대를 풀고 나오려고 소리 지르던 간성혼수 환자가 의식이 돌아온 후, 다른 건 기억 못하고 제가 나아지실 거라고 한 말만 기억하시면서 고맙다고 전하실 때... 만감이 교차하면서 보람이 느껴집니다.

김명기 / 중앙공급실

–

고등학교때 인하대병원으로 자원봉사를 한 뒤 간호사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환자가 제 목소리를 듣고 여자인줄 알았을 때 입니다.

신경원 / 수술실

–

남자가 간호사를 직업으로 가진다는 것이 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영복 / 동10병동

–

제가 술마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어머니가 간호사가 된 후로는 술 먹은 다음날 해장국을 끓여주실 때, 간호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다운 / 서10병동

–

근무 3교대와 월급을 받았을 때는 간호사 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라고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승근 / 동11병동

–

진로 결정 시기에 남자간호사에 대해 알게 되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실 땐 간호사 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박건태 / 서15병동

–

집안 권유로 간호사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직업입니다. 반면 병원일은 힘들 때가 많아요. 바쁠 때는 밥은커녕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요.

강형석 / 비뇨의학과 전담간호사

–

수개월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퇴원 후 병원 밖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을 때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에서 '너는 간호사가 참 잘 어울려' 라고 말할 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MR. Nightingale

박경수 / 신경외과 전담간호사

–

많은 직업 중 생명과 관련된, 그 중에서도 가장 환자 가까이에 있는 직업이 간호사여서 선택했습니다. 제 담당 환자가 탈원을 해서 환자를 찾아 헤맨 식은땀 나던 기억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현재 / 신경외과 전담간호사

–

환자분이 고맙다고 이야기하실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들이라 하면서 반겨주던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황영욱 / 신경외과 전담간호사

–

택시기사이신 환자분이 퇴원하면 무료로 택시 태워준다고 하셨을 때, 간호사 되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환자에게 커피를 사주었는데 커피에 무엇을 탄 게 아니냐며 경찰에게 신고당했던 에피소드, 세상은 배울 게 무궁무진합니다!!!

신재서 / 응급의학과 전담간호사

–

응급실에 온다고 모두가 응급인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료진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cynosis(청색증)가 손에 심각하게 와서 모두 중환인 줄 알고 진료했는데 알고 보니 청바지에 물들었던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는군요.

박태규 / 내시경실 간호사

–

간호사의 역할 구분은 없지만, 성별이 다른 만큼 일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남자간호사의 다른 모습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지후 / 동15병동

–

지금 저는 남자간호사 중 처음으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같이 오롯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고 매일 커가는 아이를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간호사의 보람이라면 수고했다며 건네는 초콜릿 하나 등 민망할 만큼 소소한 일상 모두입니다~^^

이덕형 / 내과계 중환자실

–

인하대병원으로 이직해서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이승철 / 내과계 중환자실

–

대소변은 여자간호사가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웃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저의 직업정신을 못 알아주시는 거 같아 안타깝고 공허했습니다.
의로운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간호사'를 선택했지만,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 보다 진보된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퇴원이나 병동으로 올라갈 때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김경훈 / 내과계 중환자실

–

갓 독립 후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가 스스로 intubation tube를 제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재삽관을 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 동안 꿈에 나올 만큼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일 이후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자주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최준영 / 내과계 중환자실

–

입사한 지 얼마 안돼서 매일 실수하고 정말 힘들었던 어느 날, 의식이 없던 환자가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져 병동에 올라갈 때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잡아주시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종찬 / 동9병동

–

중증의 환자가 퇴원한 이후 시간이 지나 걸어서 찾아왔을 때 가장 좋죠~ 병원 잘 다니고, 하반기쯤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올해 계획입니다^^

이주현 / 응급의료센터

–

간호사를 남자, 여자 간호사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간호사로서 볼 수 있는 사회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R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한팀이 되어 각자의 일을 수행하고 환자의 심장이 뛰면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과 멋진 팀워크를 발휘하는 응급실의 모습은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김민우 / 심혈관계 중환자실

–

고등학교 시절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라는 책을 읽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자가 이전보다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오수열 / 서11병동

–

입원하셨던 환자가 외래 올 때마다 같이 햄버거 먹자고 찾아와주실 때 감동받았습니다.

이동혁 / 동16병동

–

입원했던 소아환자가 저로 인해 마음이 편해졌다고 고마워 하고, 재입원시에 먼저와서 인사를 하며 반가워 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주혁 / 동9병동

–

보다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퇴원하시며 감사하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민영 / 동9병동

–

환자들이 건강하게 퇴원할 때가 가장 보람찬 일이죠. 실어증 할머니가 갑자기 말하게 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박기남 / 서9병동

–

어렸을 적 병원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 때문에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간호사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간호사입니다~^^ "여기는 남자간호사도 있어" 라고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간호사로서 병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참여가능한 조혈모세포 기증
간절한 환자들의 희망이 되어

**헌혈과는 달리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일종의 장기기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증 서약할 때처럼 마냥 가볍게 만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유전자가
90% 이상 일치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의 절차 및 부작용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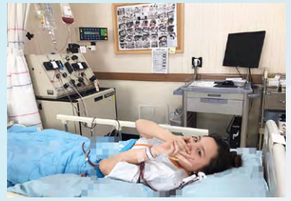
글_ **이은지 간호사** / 서12병동

호기심 반으로 한 조혈모세포 기증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본 조혈모세포 기증협회 홍보를 통해 기증 희망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조혈모세포가 뭔지, 기증 절차가 어떤지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친구들과 반 호기심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조혈모세포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며 기증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놀라기도 했고, 한 편으로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게 한 중심정맥관 삽입, 그러나 무를 수 없어!

여러 번의 피검사와 건강 검진 등을 받고 저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3일 동안 그라신을 피하주사로 투여한 뒤 입원을 하여 본격적인 기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증 진행 방식은 양팔에 16G의 바늘을 꽂은 채 4시간 동안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했던 기증이었지만 첫 그라신 투여부터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기증 전 설명을 들었지만 투여 후 척추부터 고관절까지 느껴지는 골통과 몸살 증상은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제일 큰 어려움은 양팔의 굵은 혈관이 마땅치 않아 목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중심정맥관 삽입은 굳게 다짐했던 기증조차 잠시 망설이게 했고, 간호사 생활을 하며 보기만



>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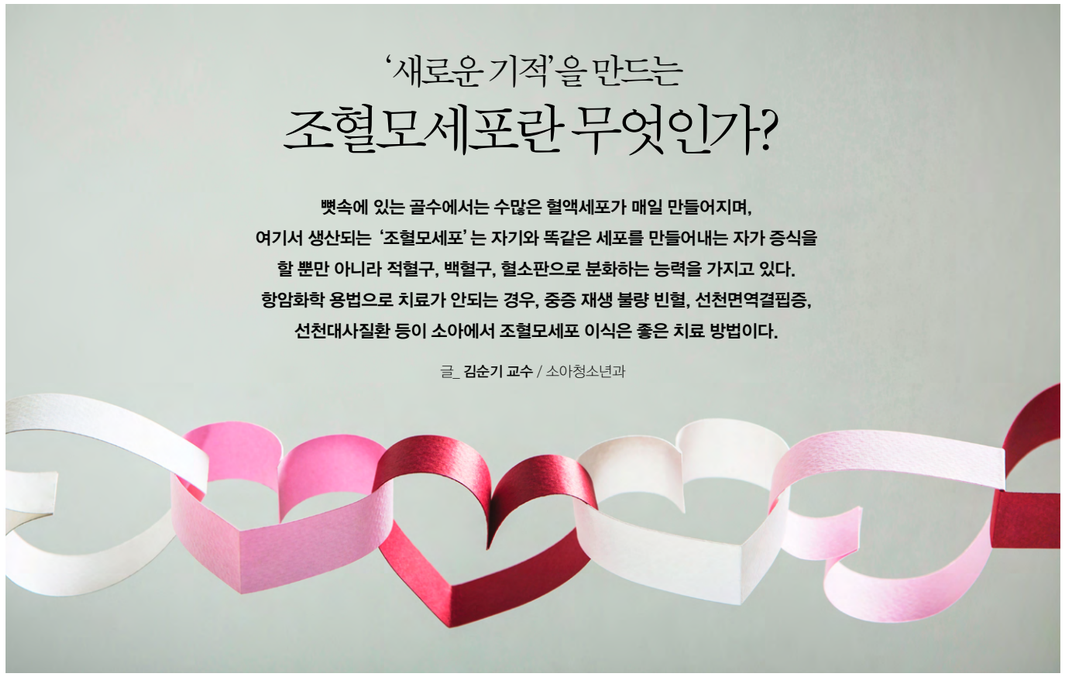
했던 중심정맥관을 직접 삽입해야 한다는 것은 공포감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무를 수 없는 노릇이었고 거의 울먹이며 중심 정맥관 삽입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로 계시던 어머니는 환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위로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분마취 덕분인지 통증은 크게 없었지만, 목 안으로 굵은 관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너무나 생소했고, 거울을 봐도 쉽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조혈모세포, 한 번 더 채취하다

그리고 다음 날, 본격적으로 기증을 진행하였고, 4시간 동안 누워서 티비도 보고, 간호사 선생님과 수다도 떨고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 약간의 어지러움과 기력이 없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것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 기증협회로부터 저는 저에게서 채취된 조혈모세포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 환자가 약간의 조혈모세포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한 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라신을 맞으며 남들보다 통증이 컸던 만큼, 조혈모세포의 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변수였지만, 누구보다 간절할 환자를 생각해 다음 날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고, 4시간에 걸쳐 한번 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증으로 '추운 겨울, 함께 따뜻해지는 마음'

그렇게 무사히 기증을 끝내고 퇴원을 한 저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의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뿌듯했고, 이런 기증방법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에게 기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증 서명을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저의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환자분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무균실 치료를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며, 얼마 후에 퇴원예정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란 무엇인가?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는 수많은 혈액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며,
여기서 생산되는 ‘조혈모세포’는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자가 증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항암화학 용법으로 치료가 안되는 경우, 중증 재생 불량 빈혈, 선천면역결핍증,
선천대사질환 등이 소아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은 좋은 치료 방법이다.**

글_ **김순기 교수** / 소아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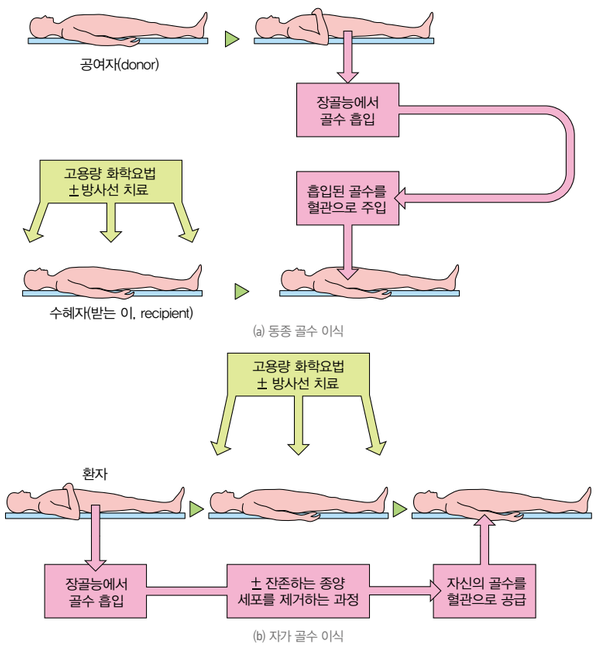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뼈는 몸의 근육, 연조직(soft tissue) 및 신체 기관을 지탱하고 있으며, 골수(骨髓)는 바로 이 뼛속에 있다. 골수에서는 수많은 혈액세포들이 매일 만들어지며, 여기서 생산되는 혈액세포의 조상을 혈액 줄기세포(조혈모세포, hematopoietic stem cell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자가 증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골수는 민감하여 약물(화학요법을 포함한 약제들) 및 방사선에 손상될 수 있다. 보통, 이런 손상은 일시적이어서 골수가 회복됨에 따라 혈액 수치도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골수가 심하게 파괴되어서 외부에서 골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재생(再生)이 되지 않는 수도 있다. 이때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무엇인가?

병이 있는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바꾸는 것을 골수이식이라고 하는데, 점점 골수를 채취하는 대신 말초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부른다. 형제 또는 타인 중에서 골수를 받아 이식하는 경우를 동종 이식(allogeneic hematopietic transplantation)이라 하며, 자신의 골수나 조혈모세포를 저장하였다가 다시 이식받는 경우를 자가(自家, autologous) 이식이라고 한다(그림 1).
동종이식의 목적은 ① 남아있는(잔존, 殘存) 암세포를 제거하고, ② 숙주(환자) 면역의 억제하며, ③ 공여자 조혈모세포가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종 이식은 사람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포를 받기 때문에 세포를 받은 사람(환자)의 면역계는 공여자의 세포를 외부의 침입자로 인식하여 이를 공격한다. 이 면역반응은 정상적인 것이며, 감염에 대한 중요한 방어기전이지만, 이 반응이 심하면 이식한 골수세포가 파괴되어 자라지 못하는 거부반응(rejection)이 나타난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에 비해서 동종 이식은 이식 후 거부 반응이나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발생 빈도가 높고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지만 재발이 적어 가장 표준적인 이식의 형태로 알려져 있다. HLA 검사는 A, B, C 및 DR 4쌍(즉 A, B, C, DR 항원 각각 2개이므로 총 8개의 항원)의 검사를 시행하여 모두 맞을 때가 가장 좋다.
자식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각각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는 반만 같다. 따라서 부모는 적합한 공여자가 아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HLA가 형제끼리 같을 수 있고 적합한 공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로부터의 이식이 가장 좋다.
만일, 가족에 적합한 골수가 없다면 다른 공여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미 골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유전자가 검사되어 있어서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회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일은 보통 병원 코디네이터가 맡아서 한다.

그림 1 동종 이식 및 자가 이식



이식의 종류

공여자(골수를 제공하는 사람)가 형제나 자매간이면 혈연 간(血緣間, related) 이식, 혈연이 아니면 비혈연 간(unrelated) 이식이라고 부른다.
혈연 간에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것으로 형제나 자매 2명일 경우에는 일치할 가능성이 약 25% 이고, 형제가 많을수록 일치율은 증가한다.
형제 간에 HLA가 같은 공여자가 없는 경우, 비혈연 간 이식을 찾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 골수 은행 협회나 가톨릭 골수정보 은행에 환자를 등록하여, HLA가 적합한 공여자를 찾고 있고, 여기서 찾지 못하면, 보호자나 환자와 상의하여 제대혈(탯줄혈액)이나 일본과 대만의 골수은행에 의뢰하여 찾고 있다.

반수체 이식(haploidentical transplantation)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나 제대혈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HLA가 불일치하는 만큼 이식편대 숙주병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T 세포 제거 후에 이식을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부반응이나 백혈병 재발의 문제가 있다.

자가골수 이식

자신의 골수를 저장하였다가 다시 이식받는 경우를 자가이식이라고 한다. 먼저 수술실에서 환자 자신의 골수를 빼내어 채집하여 온도가 굉장히 낮은 질소탱크에 저장해 놓는다.
일단 환자가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완수한 후에 저장된 골수를 녹여서 혈관을 통해 주입받는다. 자신의 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적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시, 조혈성장인자를 공여자에게 투여하면, 조혈모세포가 가동화(可動化)되어 말초혈에서도 채집이 가능하다. 이것은 혈관을 통해서 백혈구 성분 채집술이라는 과정으로 1회에 2~3시간이 걸린다.

제대혈 이식

신생아 분만 후에 떨어져 나온 태반에서 채취한 혈액을 제대혈이라 한다. 제대혈이식(cord blood transplantation)은 태반으로부터 분리한 백혈구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이식 방법이다.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지만, 워낙 제대혈의 총량이 100 mL 정도로 적다. 여기서 분리되는 백혈구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체중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생착기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서 호중구와 혈소판 착상이 늦게 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 한 환자에게 2단위 이상을 이용한 이식이 성공리에 진행된 바 있다.
제대혈은 채취과정이 안전하고 간편하며, 골수 공여자에게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다른 감염의 위험성이 적다. 또 제대혈은 골수나 말초혈액 내의 조혈모세포에 비하여 면역학적으로 미성숙 상태이므로 이식편대숙주병 같은 합병증이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은 일반적으로 항암제로 치료하지만, 재발한 환자 또는 재발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도하여 좋은 성적을 얻고 있다. 동종 이식에 비하여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치료 관련 사망은 적지만, 재발이 많다.
항암화학 요법으로 치료가 잘 안되는 고형 종양에서 이식이 시행되고 있다. 고위험군의 신경모세포종인 경우 강력한 화학 요법을 시행한 후에 자가 골수 이식을 시행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항암치료 전, 미리 환자로부터 단핵세포나 조혈모세포를 추출하여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한 다음, 고용량 항암치료 후 이를 다시 이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증 재생 불량 빈혈, 판코니 빈혈, 선천면역결핍증, 선천대사질환 등이 소아에서 시행하는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세상의 온갖 물상物像 빠르게 넘던 싸리재

사람들은 경동이란 행정명보다 흔히 '싸리재'라고 불렀다.
토속적인 이름과 달리 이곳은 한때 최신 유행을 이끌어가던
인천 최대의 중심가이자 번화가였다.
1961년 인천에서 신호등이 처음 켜진 곳도 경동사 거리였다.
빨강 · 노랑 · 녹색불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신호등은
마냥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이처럼 신문물이 흘러가고
사람과 문화가 모였던 곳이 경동이었다.

글 · 사진_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京洞

과거로의 시간여행

시계바늘을 100여 년 전으로 돌려보자. 제물포항에 짐을 내린 벽안(碧眼)의 외국인은 서둘러 쇠뿔고개로 향한다. 말잡이는 싸리재로 길을 잡는다. 우마차 한 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길 초입에 들어서니 거름 냄새가 코를 찌른다. 주변은 온통 중국인들이 경작하는 양배추밭이다. 오른쪽 언덕에는 주변 풍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건물이 하나 서 있다. 파리 외방선교회가 지은 제물포본당(답동성당)이다. 고개길을 조금 더 오르니 멀리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기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에 개통한 경인철도다.

시계바늘을 50여 년 전으로 당겨본다. 이제 6 · 25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은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삶의 씨앗을 파종하기 시작했다. 싸리재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모던보이 모던걸의 무대였던 경동에 양복점과 양화점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길 양 옆으로 상점들이 빼곡히 줄을 이었다. 긴담모퉁이 길 입구 언덕에 미국 감리교의 도움으로 지은 기독병원이 개원하고 주변에 개인병원도 한 집 걸러 하나씩 생겼다. 더불어 약방과 약국도 속속 문을 열면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

2013년 10월 초순, 그곳에서 다시 시간여행을 한다. 경동파출소 앞에 섰다. 6,70년대 야통(야간통행금지)이 있던 시절에 번화가의 특급지답게 사건사고로 늘 시끌벅적했던 파출소였지만 지금은 '경동치안센터'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거리도 무료하고 파출소 안도 무료하다.

일제 강점기 시네마 천국의 역할을 했던 애관극장

경동에 오면 아직도 옛 추억을 고스란히 곱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극장 이름은 '애관(愛館)'이지만, '보는 것을 사랑한다'(愛觀)는 의미를 품은 극장이다. 이 극장은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 '협률사(協律社)'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애관극장 덕분에 일제강점기 때 경동거리는 '복지강화'(합동영화사), '날개 없는 천사'(국보영화사) 등이 제작 보급될 만큼 한동안 시네마 천국의 역할을 했다. 특히 대동신문 지사장이자 건설영화사 사장인 최철은 인천에서 '무영의 악마', '광복 후 1년의 인천 뉴스' 등을 제작했는데 그는 최불암의 부친이다.

애관극장은 영화만 상영한 것이 아니었다. 미스터유니버스 선발대회, 취업 알선 설명회, 국정 홍보 등을 개최했으며 세계적인 음악가 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중심지답게 정치 행사도 자주 열렸다. 대표적인 것이 1945년 8월 18일 조봉암 주도로 인천건준이 결성된 행사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진 애관극장에서 당대 스타였던 신성일과 엄앵란이 무대 인사를 하던 날, 경동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희미한 전설로 남아있다.

현재 극장 사장은 탁경란 씨다. 1960년 애관극장을 재건한 이봉열 씨에게서 1972년 극장을 인수한 탁상덕 씨의 막내딸이다. 오빠가 맡았던 극장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자 그는 미국에서 들어와 경매로 이 극장을 재인수했다. 애관은 지난 2004년 5개의 스크린을 가진 멀티플렉스로 변모했다.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영화 '관상'과 '스파이' 등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극장에 들어섰다. 평일 한낮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극장 안의 풍경은 늘어진 필름처럼 한가롭게 돌아가고 있다. 이곳에서 두 시간 내내 까치발을 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았던 헐리웃 키드들에게는 애관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저 고맙다.

옛 흔적이 남아 있는 신신예식장과 웨딩거리

극장 뒤 언덕에 오르면 신신예식장이 있다. 이 예식장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80년대까지 만해도 인천에서 '좀 폼나게'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거의 신신예식장에서 치렀다. 이 예식장에는 작은 정원이 딸려 있어 예식이 끝나면 이 야외마당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예식장이 비어 있는 날짜에 맞춰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할 정도로 인기 있던 곳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첩장에서 '신신예식장'이라는 글자를 볼 수 없다. 한동안 이름을 '신신컨벤션웨딩홀'로 고치면서 신세대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올 초 모 대학교에서 이 건물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어쩌면 침상에 누워있는 이들 중에는 이 신신예식장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살다가 이제는 혼자가 되어 들어온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만 늙은 게 아니다. 우아했던 건물은 여러 차례의 증축을 통해 옛 모습이 거의 사라졌지만, 아

직도 정원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신랑신부가 새 출발을 위해 첫발을 디뎠던 경동 쪽으로 난 옛 계단 출입문도 그대로다.

이제 이곳에서 결혼행진곡을 들을 수 없지만 신신예식장은 이 거리에 웨딩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길 양편으로 드레스숍이나 한복집 그리고 사진관 등 결혼 관련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몇 년 전에는 아예 '웨딩거리'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다. 번성했던 경동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던 상점은 양복점이었다. 한미라사, 김테일러, 화신양복점, 서울라사, 잉글랜드양복점, 자유라사, 신라라사, 백양테일러, 대흥양복점, 월드양복점, 현대라사 등 한창 때는 30여 개의 양복점이 성업을 이뤘다. 멋쟁이 신사들이 한 벌 쫙 빼입고 활보하던 거리에 이제 양복점 간판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맞춤 양복은 기성복에 밀리고 백화점에 밀렸다.

모퉁이 길에서 눈에 띄는 이수일양복점에 무작정 들어갔다. 한가롭게 TV를 보던 이수일(71) 사장에게 옛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다 잊혀진 이야기인데 뭘…" 하면서 말꼬리를 흐린다. 이것저것 양복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던지자 그제야 얘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다.

"한창때는 재단사, 봉제사 등 20명을 두고 장사를 했지. 추석과 설 명절 때는 며칠 밤을 새워서 일하곤 했는데… 한때 극장 영화 예고편 앞에 양복점 광고가 몇 개씩 붙은 적도 있었지."

그때 손님 한 명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오늘이 가봉하는 날이란다. 가봉…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가. 이내 줄자를 목에 건 이 사장의 눈빛은 금세 장인의 눈빛으로 변한다. 돌리고 재고 올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몸통 치수를 쟀을까. 요즘 맞춤양복 한 벌 값은 대략 100만 원 선. 단골인 듯한 손님은 스스로 특이 체형이라면서 양복을 꼭 맞춰 입는다고 한다.

"아마 여기에 제 아버님 치수 장부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장부를 들춰보면 체형이 비슷한 부자(父子)들이 대를 이어 양복을 맞춰 입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옛날식 다방과 길게 줄 서 약을 사던 동서대약국과 싸리재약국

차 한 잔 권하는 이수일 사장에게 커피 대신 이 동네에서 좀 오래된 다방을 알려 달라고 하자 바로 양복점 옆 골목에 있는 '학다방'을 소개한다. 인천에서 연조가 있는 다방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비걱대는 나무문을 밀고 들어가니 색깔 조명 밑의 탁자와 의자 등의 소품이 70년대 다방 분위기를 그대로 풍긴다. '궂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릴 들어보렴' 최백호의 노래가 절로 생각났다. 도라지 위스키 대신 쌍화차 한 잔을 시켰다. 잠시 후에 노른자위가 둥둥 뜬 쌍화차가 탁자에 놓였다. 아, 계란 띄운 쌍화차가 이곳에서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약을 사기 위해 문밖으로 줄을 길게 선다면 이해가 갈까. 그런 풍경이 심심치 않게 연출되었던 곳이 동서대약국과 싸리재약국이었다.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김내과, 이이비인후과 등 십수 개의 개인의원들이 함께 의료타운을 이뤘다. 인근 김포, 강화, 옹진 섬 사람들이

시내에 온 김에 약을 박스나 봉지채로 사가곤 했다.

동서대약국의 간판에는 'Since 1946'이란 글자와 함께 옛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있다. 옛 주인은 미국으로 이민가고 지금은 이 집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가 세들어 운영하고 있다. 바로 옆 코너에 있던 싸리재약국은 성병 즉효약 조제로 유명했다. 얼마 전 커피숍에 자리를 내주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렇게 싸리재는 잊혀지고 있다.

인천 연극의 산실 '돌체'

싸리재 하면 '돌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돌체는 최영준, 김성찬, 정주희 등 100여명의 연극인들을 배출한 인천 연극의 산실이었다. 지난 1978년 12월 얼음공장을 개조해 약 90석 정도 되는 객석과 무대공간을 만들어 문을 열었다. 초기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를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 당시 유행이었던 싱어롱의 무대도 겸했다. 극단마임 대표인 최규호 씨가 마임 전용극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문화에 불씨를 키우기도 했다.

2007년 마임이 남구 문학동으로 이전하며 돌체극장은 한동안 조명이 꺼졌다. 싸리재 부근에는 돌체를 필두로 배다리예술극장, 미추홀소극장, 경동예술극장, 신포아트홀 등 소극장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져 갔다. 2010년 돌체가 떠난 자리에 문화활동가이자 작가인 장한섬(39) 씨가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라는 간판을 내걸면서 돌체 골목에 다시 조명이 들어왔다.

가구점 사이에는 '경기의료기'가 있다.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차영(63) 씨가 34년 넘게 의료기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병원이 많았기 때문에 한창때는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의 절반은 환자 아니면 환자 가족이었을 것이다.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얼마 전 '업종' 겸업을 시작했다. 2층을 수리해 카페를 들였다. 천장 서까래에는 당시 상량식 때 써 놓은 '소화 5년 4월 5일 오후 3시'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다. 소화 5년은 1930년이다. 파인 벽에는 당시 흙과 지푸라기를 사용한 흔적들이 드러난다.

카페 창으로 내려다보이는 90여 년 전에 지어진 그의 ㅁ자 전통 한옥이 햇빛을 환하게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안채에 살다가 몇 해 전 이사를 했다. 빈 한옥은 게스트하우스가 되었다. 그는 새 간판을 달았다. '경동의료기' 글자 옆에 카페 '싸리재'를 붙였다. '경동'과 '싸리재'가 오누이처럼 잘 어울렸다.

현재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로 사용하고 있는 옛 돌체

그때, 이곳 경동

광신제면 우리나라 면발의 역사를 새롭게 쓴 쫄면이 탄생한 곳이다. 창업주 장보성(83) 할머니는1960년대 말 남편과 함께 냉면공장을 시작했다. 당시 인천에 냉면공장은 현대시장과 제물포, 이곳을 포함해 세 곳이 전부였다. 주문에 밀려 면발 뽑는 금형틀을 잘못 끼우는 바람에 냉면 면발이 굵게 나왔다. '이게 뭐야'. 할머니는 잘못 뽑힌 면을 버리기는 아까워 공장 옆의 분식집에 줬다. 분식집 주인은 다양한 야채와 함께 고추장으로 새콤달콤하게 버무렸는데 이게 대박. 이것이 현재의 쫄면이다.

삼성태 양화점은 1885년 단발령이 내린 이후 양복과 양장 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생긴 개화 풍조였다. 인천 최초의 양화점은 1905년 애관극장 맞은편에 문을 연 '삼성태'였다. 주인 이성원은 짚신 대신 바닥은 가죽, 발등은 우단이나 천막천을 댄 남자 고무신 형태의 값싸고 질 좋은 '경제화'를 만들었다. 이후 밑창을 개량한 만력저(萬力底) 신발은 동경박람회에서 발명상을 수상했다.

‘당신과 나는’ 충분히 아물었으니,
웅크리지 말고 세상에 나와 맞서라!!

기적은 내 가까이에서 일어날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그에게 ‘휠체어 의사’ 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닌다. 악몽에서도 핑크빛 희망을 꿈꾸는 자기 최면의 고수 우리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면서 변호사이기도 한 박성민 전공의를 만났다.

에디터_ **이정희**

얼마 전부터 민들레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현실을 잊어야 살 수 있는 투박한 그의 방식은 ‘의사&변호사’ 라는 두 가지 길을 허락한듯싶다.

> “상처가 치료되면 남는 흉터를 계속 보게 된다. 그 흉터는 또 다 나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은 버틸 힘이 생긴 거다. 흉터는 치유의 흔적일 뿐이다.”

변호사에서 다시 의사로

박성민 전공의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여전히 부모님은 가족들 풀칠 할 정도의 농사를 지으며 그 터에서 그렇게 30년 째 살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03년 카이스트 공대를 붙었으나 인하대의대로 진로를 바꾸고 스키 사고로 척수1급 장애를 받은 것, 그래서 의대 졸업 후 서울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면허증을 받은 것이다.

“지금은 몸을 많이 안 쓰는 과로 오긴 했지만 의사는 기본적으로 몸을 많이 쓰잖아요. 먹고사는 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로스쿨로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로펌에서 그에게 맡겨지는 사건은 의료사고가 대부분, 의무기록만 보다 보니 의사 생활은 어떨까 싶어 더 늦기 전 인턴으로 돌아온 것은 의대 졸업 후 4년 만의 일이다.

“2014년 3월부터 인턴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4년차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죠. 제가 병원 경영진이어도 갈등했을 겁니다. 1인분을 하면 다행이고, 0.7인분? 또는 짐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의욕만 앞서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1인 의사 역할을 위해서 3인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제가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잘 아는 선배는 아니었지만 후배를 많이 도와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 최선근 교수(인하대병원 / 외과)에게 먼저 연락했고, 모교 출신 선배 의료진의 응원과 지원도 있었다.

순대국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민감하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투박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힘들지만, 대외적으로는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할 뿐이라는 박 전공의다.

“푼다?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 원인이 하반신 마비인데 하반신 마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는 거죠. ‘일시적으로 도피한다.’ 아니다, 일시적으로 잊는다는 정도의 느낌이 맞겠네요.”

잊고 살아온 그에게 가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온다. 시장통에 있는 할머니 순대국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건물 2층이 계단만일 때,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거절당할 때이다.

결혼정보회사의 거절도 여러 번이다. 의대 · 로스쿨 스펙과 사진만 보면 연락이 많이 오다가 상태 얘기를 하면 거절당할 때 슬프다고 말하는 박 전공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 본 거 같다며 허탈한 미소를 담는다.

더 힘든 것은 여자한테 차일 때, 핑크빛 세상을 꿈꾸는 사랑꾼

전공의가 끝나면 변호사와 의사 두 가지를 하고 싶다.

“의료사고는 일반 소송 피해자보다 더 억울한 심정이 심한 거 같아요. 나을 거라는 기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억울해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또 의사생활을 하고 보니 어느 쪽이 승소해도 찝찝한 상태인 거 같네요.”

직업환경의학과는 로스쿨로 간 거처럼 몸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업무상 재해 판정 등 변호사 지식을 쓰기도 좋아 박 전공의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었다.

딱히...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라고 답한다. 행복이라는 건 ‘플러스’가 많이 쌓여야 하는 건데 자신의 상태는 지금 ‘나쁘지 않다’ 정도이다.

사고 났을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극한의 재활치료를 거쳐 드라마처럼 다시 걷게 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여자한테 차일 때라고 말하는 그는 여전히 핑크빛 세상을 꿈꾸는 건강한 남자, 로맨티스트, 사랑꾼이다.

어쩌면 변호사 자격증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지론은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 라고 했다.

그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준 세상이지만, 그 순간에도 아름다운 세상의 ‘찰나’를 보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파도 사랑하려는 그에게 충분하고 소중한 예쁜 행복이 옆에 꽤나 가까이 있기를...

식물을 곁에 두고 살자!

미세먼지 잡는 초록의 힘

한겨울에도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그래서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어느 곳에 어떤 식물을 놓아야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글_ 편집부

1 공기정화식물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4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실험을 했다. 빈 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했더니 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44% 줄어든 반면, 산호수를 들여 놓은 방은 70%, 벵갈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67% 줄어들었다고 한다.

2 공기정화 효과의 원리

첫째, 식물이 숨 쉬는 것, 그것이 광합성이다. 그 때 기공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 기본이다. 그 과정에서 식물은 음이온이 나온다. 반면 미세먼지는 양이온이다. 식물이 뿜어낸 음이온은 공기 중 미세먼지인 양이온과 합쳐진다. 두 번째는 잎이 반질반질 한 식물이 있다. 마치 왁스나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돼 있는 식물들. 그 식물들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한다. 초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털이 나 있는 식물들이다. 가는 털이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달라붙게 하는 등 세가지 원리가 그것이다.

3 식물마다 관리방식도 바꿔야

왁스층이 있는 식물의 경우엔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한다. 털이 나 있는 식물은 반대로 닦으면 털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비를 맞듯이 흐르는 물에 흘려 씻어줘야 한다. 아프리카 바이올렛이 대표적이다. 기공이 있는 잎 뒤편도 닦으면 안 된다.

4 실내에 식물을 얼마나 두어야 효과가 있을까?

식물로 공기 청정의 효과를 보려면, 공간의 부피 대비 2%(면적대비 5%)가 가장 적당하다. 부피대비 2%의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이 각각 50.4%와 60.0% 줄어든다고 한다.

5 겨울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공기정화식물

겨울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싶다면 공기 속에 있는 각종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행운목, 열대식물이지만 영하의 기온에서도 잘견디는 미 항공우주국(NASA) 선정 공기정화 식물 2위인 관음죽, 실내 분위기까지 한껏 꾸며주는 공기정화의 효자 벤저민 등이 효과적이다.

6 모든 식물은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

사무실에도 공기정화식물을 두면 좋다. 우리가 공기정화식물이라고 부르는 건 효율의 차이 때문인데 공기정화식물로 유명한 남천의 경우엔 일반 식물보다 그 효율이 60배 높다. 그래서 공기정화식물이라고 부른다.

- 20㎡ 크기의 거실을 기준으로 식물 크기가 100㎝ 이상 큰 것은 3개, 중간 크기 식물은 7개 정도면 충분하다. 평균적으로 3.3㎡당 한 개 정도의 식물을 둔다고 보면 된다.
- 일기예보가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단계로 예측했을 때 우리는 하루 약 1.5mg의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마시게 된다. 반면에 약 1m정도 크기의 실내식물은 약 3mg의 미세먼지를 없애준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
-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실내 식물로는 고사리류인 보스톤 고사리와 넉줄 고사리가 있다. 허브류로는 라벤더와 로즈마리, 초화류 중 아이비나 스킨답서스도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식물이다. 목본류로는 율마와 멕시코소철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제거 식물로 꼽힌다.
-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과 자일렌을 제거하는 데는 만병초와 자금우, 호야나 금전수, 팔손이나무를 곁에 두면 좋다. 유해물질은 식물 잎 앞면에 있는 왁스 층에 흡착되거나 뒷면의 기공으로 흡수되어 제거된다.

어느 곳에 두어야 효과적일까?

공기정화식물을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공간 배치가 중요하다.
* 공부방 – 로즈마리, 게발선인장, 팔손이나무, 개운죽
* 주방 식당 – 스파티필름, 스킨답서스, 산호수, 안스리움
* 화장실 – 양티식물, 아자류, 관음죽
* 거실 – 소피아고무나무, 시클라멘, 팔손이나무
* 침실 – 선인장, 호접란, 다육식물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 배, 미역, 마늘, 생강, 브로콜리

미세먼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조해진 몸속을 꾸준한 수분 섭취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또한 녹황채소, 물, 마늘, 생강, 해조류 등이 각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코와 입을 통해 폐에 쌓일 수 있어 폐 염증에 좋은 배와 중금속 배출을 돕는 미역, 해독 작용이 있는 마늘,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생강이 효과적이며, 녹황 채소 중 브로콜리가 면역력 강화에 좋다.
물과 녹차를 지속해서 마시는 것도 미세먼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들은 혈액의 수분 함량을 높여 소변을 통해 중금속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 수칙이자 예방법은 외출 후 위생 관리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양치질하기, 얼굴과 손발 등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 습관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인하대병원 제2터미널 공항의료센터 개원

여객 및 상주 직원의 건강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센터로!

1

2

3

4

5

6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존 운영 중인 제1여객터미널 의료센터와 더불어, 제2여객터미널 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월 18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위치하는 공항의료센터는 일반적인 진료는 물론 공항 내 항공기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환자의 기본처치 및 후송을 총괄하는 등 의료조정관으로서 상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전후 병원을 찾는 국내 · 외 여객 및 제 2터미널의 5만여 명에 이르는 상주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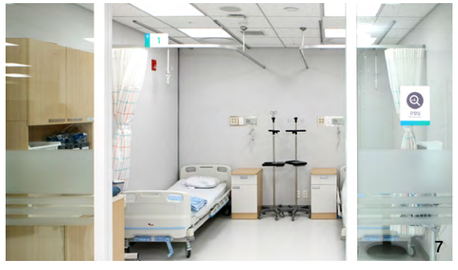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제2터미널 공항의료센터는 2개의 진료실이 있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치료실과 환자들에게 사용할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약품보관실 및 처치실과 소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계측기와 혈압계의 최신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심전도실과 환자를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실 및 쾌적한 환경의 안정실이 있습니다.
공항의료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도약에 함께 하게 된 인하대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에 걸맞게 의료센터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내외 여객 및 상주 직원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erminal 2

Airport Medical Center

1 진료실 **2**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치료실 **3** 약품보관실
4 처치실 **5** 소독실 **6** 신체계측기와 혈압계가 구비된 심전도실
7 환자를 집중 관찰할 수 있는 관찰실 **8** 쾌적한 안정실


7

8

인하대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15분 진찰, 의사의 충분한 설명 불필요한 검사는 줄인다!

15분 동안 심층진찰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동안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어 의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 만족감이 상승될 것이다.

글_ **이복영 과장** / 진료협력팀

인하대병원은 2016년 5월 2일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에 이어,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201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은 1단계 진료기관(병 · 의원)과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료의뢰와 진료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뢰 · 회송 과정의 비용(의뢰환자관리료/회송환자관리료)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며,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하대병원은 1차로 2016년 5월 2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료의뢰 · 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2차로 2017년 12월 1일 이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진료의뢰 · 회송 시범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1시간 대기, 3분 진료 깬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진찰 시에 꼼꼼히 진료했다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을까? 1시간 대기하여 3분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시스템으로는 기본진찰에 충실할 수 없다. 3분은 환자를 진찰하기에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1단계 진료기관(병 · 의원)에서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 되는 최초 진찰에서 15분 동안 기본진찰을 충실히 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의료의 질 향상 /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를 진료회송 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7개 진료과, 8명의 의료진 심층진찰 실시

심층진찰 사업은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개 중, 인하대병원을 포함하여 1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심층진료와 중증환자 입원, 종합병원은 입원과 수술,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적정 진료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희망하는 7개 진료과, 8명의 의료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고 일반진료 시간과 분리하여 심층진찰을 운영한다.

류마티스내과 권성렬 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 이비인후과 김규성(이과) 교수, 이비인후과 최정석(두경부) 교수, 흉부외과 윤용한 교수, 피부과 신정현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 등이 심층진찰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 의뢰받은 환자에게 적용, 진료협력팀에서만 예약 가능

심층진찰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미진단 관련 질환으로 1단계 의료기관(병 · 의원)에서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진찰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 희망(Patient wanted)으로 심층진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모든 응급진찰도 제외한다. 최초 1회 진찰에만 심층진찰이 적용되고, 심층진찰료 93,980원 중 25%(건강보험자)만 본인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7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진찰료 이외의 각종 진료비는 각각의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층진찰 예약은 진료협력팀에서만 예약할 수 있다. 진료 의뢰된 환자 중, 심층진찰이 필요한 대상자를 구분(Gate Keeping)하는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진료협력팀 전문간호사가 심층진찰 예약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심층진찰 의료진은 심층진찰 후 2차 진료 시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설명하고 진단을 내리고, 확진된 질병의 특성, 예후, 수술법 및 치료법의 장 · 단점을 설명하고, 환자 ·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며 필요하면 타과 협의 진료 / 산정 특례 등록 / 진단서 작성 등을 시행한다.

병원이 제 기능을 다하며 상생할 수 있기를

15분 동안 심층진찰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지급금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시간 동안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어 의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 만족감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 역시 치료계획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환자와 신뢰(Rapport)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의료문화 의식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감기와 같은 기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병 ·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진료하는 병원쇼핑이 감소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치료 · 중증질환 치료가 완료되면 지역 병 · 의원으로 가서 치료 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다하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 및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김영모 병원장의 "협력병원과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자"라는 지침 하에 진료협력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하대병원 진료협력팀은 작지만,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진료협력팀의 일원으로서 새로워진 의료 환경 안에서 더욱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날을 그려본다.

| 심층 진찰 대상자 |

- 건강보험자(차상위 포함)
- 진료의뢰서를 소지한, 중증 희귀난치(의심)환자, 미진단, 추가검사 필요 대상자
- 해당 진료과 초진 환자
- 심층진찰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

| 심층 진찰 과정 |

1 1단계 진료기관의 진료의뢰
2 인하대병원 진료협력팀 진료예약(매뉴얼에 따라 예약)
3 예약일 진료협력센터 방문 · 접수(시범사업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외부기록지 · 외부영상 저장)
4 심층진찰 시행(진료결과에 따라)
- 중증 희귀난치(의심)환자는 인하대병원 진료 지속
- 경증환자 및 본원 진료 종결된 환자는 1단계 진료기관으로 진료회송(진료협력팀)

| 심층 진찰 내용 |

- 외부 병원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영상자료 검토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검토
- 문진 및 진찰 시행
- 전산 의무기록 입력
- 환자에게 의심되는 질환 및 추가로 필요한 검사에 대해 설명
- 희귀질환의 경우, 유전자 검사 필요성 및 직계 가족 검사가 동반됨을 설명
- 잠정적인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설명

환자 경험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간호사 스스로 환자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 · 사진_ **유미애 팀장** / 서비스혁신팀

환자를 향한 나이팅게일의 깨달음
"인하대병원 Excellent 환자경험 Festival"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입원환자들은 진료의 질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공감능력, 존중과 예의, 경청 등 감성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이에 입원병동과 집중치료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직접 환자체험을 하는 '환자경험의 날' 행사를 시행(2017. 8 ~ 2018. 1)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아니면 몰랐을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및 공유할 수 있는 '환자경험 페스티벌'을 하였다.

교직원 180여 명과 경인지역 협력병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제는 환자 만족도가 아니라 경험을 측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맞게 된 의료계의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페스티벌 개최 배경을 공유했다.

또한, 2017년부터 환자경험 현장 매니저 제도(입원간호 및 특수간호팀 경력간호사 25명으로 구성)를 도입한 인하대병원은 환자 직접경험, 간호현장 모니터링, 맞춤형 CS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간호직에 대한 소명의식 함양과 병동 CS를 주도하는 솔선수범형 간호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이번 환자경험 경진대회에서는 병동, 집중치료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5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구연부분 7개 부서와 포스터부분 9개 부서가 선정되어 경합을 벌였다. 포스터부분은 '환자와의 눈맞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7병동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구연부분에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주제로 서 17병동이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대상을 수상한 서 17병동 간호사는 사지 억제대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이 되어 직접 경험 해 보았다.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본 후 우리가 돕는 진정한 손길이 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를 충분히 넣어 주고 의료진의 서슴없는 손길에 실제 환자들은 당황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부드럽게 양해를 구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환자경험에 참여한 또 다른 병동 간호사의 인터뷰에서 '24시간 환자와 함께 있었지만 환자가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환자의 불편감과 고통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사소한 것까지도 배려하는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고 참여 소감을 밝혔으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의료서비스디자인 활동 사례도 발표되어 문제점 도출과 개선전략까지 제시하는 뜻깊은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다.

'환자경험'을 넘어 '치유, 안전, 공감, 감동'을 이끌어내야 병원혁신

이번을 계기로 인하대병원은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마땅한 기초(치유, 환자안전)를 탄탄히 하고 사용자, 즉 환자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할 때이고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할 때이며 전 직원이 일기일회(一期一會) 마음으로 환자와 동료에게 공감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와의 눈맞춤, 아름다운 동행' – 7병동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 서 17병동

共感

탈모 예방을 위한 영양소와 치료제

Alopecia

Q **탈모 때문에 고민입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A 영양섭취와 모발 성장 및 탈모와의 연관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영양결핍, 특히 철분과 아연의 결핍은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체중감량 역시 탈모의 유발요인입니다. 모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는 단백질, 필수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D, 비오틴, 셀레늄, 아연, 철분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연어, 호두, 굴, 고구마, 달걀, 시금치, 대두유, 요거트 등이 있으니 평소에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Q **혹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도 탈모가 지속된다면 탈모치료제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싶은데요, 탈모 치료제의 적정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A 정상적인 모발 성장 속도는 1cm/월 정도로 매우 느리기 때문에, 탈모 환자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한 후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은 finasteride와 monoxidil이 있습니다. Finasteride의 경우 사용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며 효과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을 중단할 경우 6~9개월 내 모발 재성장 효과를 잃게 됩니다.

Minoxidil은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5% 외용액을 사용한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지만, 일부 문헌에서는 치료 효과 평가 전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minoxidil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4개월 동안 사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지만, 역시 일부 문헌에서는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Q **탈모 치료 외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사용법을 알 수 있을까요?**

A Minoxidil 액 또는 겔은 하루 두 번(아침, 저녁) 머리카락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합니다. 저녁 사용 시 약액이 마를 수 있도록 최소 2~4시간 전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시된 용량을 환부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모발이 아닌 두피에 적용하고 사용 후 즉시 손을 씻습니다. 사용 후에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2~4시간 기다립니다.

Alfatradiol 액은 하루 한 번 두피가 건조된 후 사용합니다. 아침 혹은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사용하되 일정한 시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약이 잘 흡수되도록 도포 부위를 약 1분간 마사지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2~3일에 1회로 사용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Ref, Kims 학술센터, Parma Updates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7 | 야간 032) 890-3315**

For you, With you
당신만을 위한, 재활치료를 디자인하다

효성요양병원은 199병상 규모의 재활 요양병원으로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 등 양 한방 협진 진료로 운영하고 있다. '내 집 같은 병원'이라는 재활 요양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효성요양병원의 김수임 병원장을 만나보자.

효성요양병원 **김수임** 병원장

일상복귀 위한 환자 중심의 맞춤형 1 : 1 재활치료

효성요양병원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 척수 손상 등 뇌 질환과 척수손상 환자에게 1:1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된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환자를 위해, 환자와 함께' 하고 있다. 효성요양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빠를수록 좋은 재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입원부터 시작되는 면밀한 진료와 재활평가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2층 전체를 전문재활치료실로 운영하고, 최신식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넓은 개인 공간은 물론이고, 휴게실, 매점, 하늘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환자분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심리사회적 상담과 경제적 상담 등 기존의 사회사업 개입뿐만 아니라 그룹치료, 원예작업치료 등 재활치료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사회사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재활과 신체적 재활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삶의 질을 위한 효성요양병원의 의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맛있는 밥

효성요양병원에서 자신 있게 선보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밥이다.

배도 부르지만, 마음까지 부른 대한민국 병원 중 가장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집밥을 준비한다.

그리운 '집밥'을 먹을 수 있는 '내 집 같은 병원', 환자의 재활을 맞춤으로 이끄는 전문 조력자로 앞장설 것을 효성요양병원 의료진은 약속한다.

| **효성요양병원** | 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538 ☎032-555-2695

| **진 료 과** |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

| **진료내용** | 뇌졸중(중풍), 뇌출혈, 척수손상, 수술 후 재활, 희귀 난치성 질환, 암, 노인성 질환, 중증 질환 등

인하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지난 12일(화)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등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법 중 하나이다. 좁아진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0월 ~ 2016년 9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 실시기관인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과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다. 인하대병원은 특히 '수술 후 재수술 비율 및 퇴원 7일내 사망률' 에서 0%를 기록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모 병원장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시스템을 발휘해 심장질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HA Happy Plus' 첫 번째 나눔 소아병동의 환아와 함께 즐거운 시간

인하대병원은 10년째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과 크리스마스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병동의 환아들을 위해 행사를 열고 있다.

12월 14일(목), 인하대병원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총지배인 아담 마이어트, Adam Myott)과 함께 8층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어린 환우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물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의 총 지배인 아담 마이어트(Adam Myott), 총주방장인 마린 루서드(Marin Leuthard)도 참석하여 환아들에게 준비한 다과를 나누어주고,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INHA Happy Plus' 두 번째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12월 16일(토), 인하대병원 임직원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산동네를 찾아가 연초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에 함께한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들을 포함한 70여 명이 함께 했다.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최선을 다해 2,000여장의 연탄을 나르며, 보는 이의 마음도 훈훈하게 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일조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INHA Happy Plus' 세 번째 나눔 토요타와 함께하는 자선 병원 콘서트

12월 20일(수), 인하대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하 1층 로비에서 토요타와 함께 '자선 병원 콘서트' 를 실시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이 기획과 공연 전반적인 사항을 맡았다. 개그맨 김대성 씨가 사회를 보고,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Unai Urrecho)씨, 소프라노 이윤정 씨와 함께 KBS 교향악단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랑의 협주는 인하대병원을 방문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고된 치료를 극복해나가는 이들과 늘 함께하는 존재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SK와이번스 초청 팬사인회 개최

2017년 12월 4일(월), 인하대병원은 박정권 선수 등 SK와이번스 스타급 선수들을 초청하여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박정권, 박정배 , 이대수 선수가 초청되어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인회 개최 후, 8층 소아병동을 찾아 50여 명의 환아들에게 사인볼을 선물하며 쾌유의 희망을 선물했다.

더불어, 인하대병원은 올해 정규시즌 동안 박정권 선수가 기록하는 홈런 수만큼 인하대병원과 SK와이번스가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및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행복드림 홈런'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1,600만 원의 성금을 현재 치료 중인 환아 3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최

12월 18일(월), 인하대병원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함께 병원 내에서 내원객들과 소아 환아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 송도지역 우리동네 과학클럽은 인하대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수학퍼즐, 다트 게임,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또 병동을 방문해 소아 환아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나누어주고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등 쉽고 재미있는 과학 체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지정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가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수행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4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인천광역시 · 군 · 구 보건소, 각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여 금연 사업을 유지하고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 건강의 시작인 '금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인천 남구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약 맺어

인하대병원은 12월 5일(화) 인천광역시 남구청과 남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의 센터 수탁 운영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인하대병원은 남구 주민 대상 치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남구청과 센터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만 60세 이상의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노인등록관리사업, 예방교육사업, 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 노인 치매 조기 치료 활동 등을 진행한다.

향후 지역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

소화기질환 T2B기반구축센터, (주)노터스와 업무 협약 체결

1월 11일(목), 인하대병원 소화기질환 T2B 기반구축센터(센터장 이돈행)는 민간 CRO 기관인 (주)노터스(경기도 구리시 소재)와 대동물내시경센터 확장 이전 및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동물내시경센터의 확장 이전과 더불어 연구 교류 및 기술지원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유대 강화, 특히 중 · 대동물 실험협력과 시설장비의 공동사용 등에 상호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하대병원 소화기질환 T2B기반구축센터는 소화기 관련 의료제품의 유효성 평가를 통해, 제품개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발굴 · 지원하고 있다.

김영모 병원장, 인천시 의료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 위촉

2017년 12월 26일(화),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은 인천광역시에서 구성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 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시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기본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을 얻고, 관련된 기반조성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자문을 얻고자 구성한 위원회이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8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2016년 국내 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3차 인증에 성공하였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김시현 부단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12월 18일(월),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김시현 부단장은 2017년도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시현 부단장은 수십 차례 국내외 의료봉사를 비롯, 인천시와 인하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사회인 육성사업'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보호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등에 앞장서는 등 인천시 아동복지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에 지대한 기여를 해온 바 있다.

수상 직후 김시현 부단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살기 좋은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1회 『인하대병원 서비스아카데미』 핵심인재 역량 Level UP Project

2018년 1월 11일(목) 인하대병원은 제1회 『인하대병원 서비스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의료인이 가져야 할 서비스마인드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의 교육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재로써 필요한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각자의 위치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등 CS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직원과 협력병원 관계자 총 56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우철 의료혁신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격(格)의 시대'에 걸맞은 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개최 의미를 밝혔다.

소아당뇨병 환우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제8회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 성료

인하대병원이 올해도 지역사회 소아당뇨병 환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월 6일(토), 소아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의 인식개선, 질환관리 교육을 목적으로 인하대병원 강당에서 '제 8회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를 실시했다.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는 인천 최초의 소아당뇨병 교육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당뇨내분비센터 의료진이 진행하였으며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당뇨병 전문가의 교육, 각종 심리지원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공동 워크숍 개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 운영경험 축적 및 질적 수준을 높인 실적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은 인하대병원은 12월 1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선도병원으로는 최초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 관계자, 일산병원 및 인하대병원 간호관리자 등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전략을 주제로, 환자안전 관리체계, 효과적 인력운영방안, 미래형 간호서비스 모델 비전 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17 경인지역 재활의학집담회' 성료

12월 8일(금),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17 경인지역 재활의학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정한영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좌경림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60여 명의 경인지역 재활의학과 교수 및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뇌졸중 환자 운동기능평가 ▲버그 균형검사 소개 및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한영 센터장은 "이번 재활의학집담회를 통해 경인지역의 의료진들과 뇌졸중의 재활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장기이식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신장이식 환우를 위한 공개강좌 개최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안승익)는 12월 12일(화),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한 환우와 가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장이식 환우를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신장이식 수술 및 수술 후 건강관리(외과 박근명 교수) ▲신장이식 후 주기적 진찰과 검진(신장내과 황선덕 교수) ▲신장이식 환자의 영양 관리(김재희 영양사)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지원(장기이식센터 김현화 코디네이터) ▲환자 경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진행했다.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7. 11. 3

출연 : **피부과 최광성 교수**
언론사 : EBS 〈명의〉
주제 : 천만 탈모 시대, 머리카락을 지켜라

2017. 11. 7

출연 : **직업환경의학과 김환철 교수**
언론사 : 연합뉴스
주제 : 버스정류장 근처 오래 살면 폐암 위험 최고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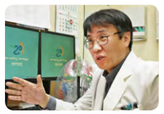
2017. 11. 7

출연 :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
프로그램 : 월간헬스조선
주제 : 우울하면 무조건 우울증? 20대는 조울증일수도

2017. 11. 17

출연 : **피부과 신정현 교수**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정보세상 인천〉
주제 : 건선

2017. 11. 20



출연 :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
언론사 : 연합뉴스
주제 : 폐암으로 인한 고통, 여성이 남성보다 심하다

2017. 11. 22

출연 : **외과 허민희 교수**
언론사 : 경인일보
주제 : 유방암

2017. 11. 30

출연 :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김명옥 교수**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개국 16주년 기념 프로그램〉
주제 : 사랑의 무료진료

2017. 12. 1

출연 :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프로그램 : 동아일보
주제 : 환절기불청객 뇌혈관 질환 골든타임을 지켜라

2017. 12. 12

출연 : **소화기내과 방병욱 교수**
언론사 : 인천교통방송 〈정보세상 인천〉
주제 : 장염

2017. 12. 20

출연 : **혈액종양내과 박근명 교수**
프로그램 : 경향신문
주제 : 핏 살리려다가 핏길 막힌다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대상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바랍니다)	2월 13일(화), 3월 7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 대장암의 이해 •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3월 20일(화)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지하 2층 세미나 3실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3767, 3768
위암 환자 교육	• 위암의 이해 • 위암 환자의 영양 • 위암 수술 후 관리 –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2월 13일(화) (짝수달 셋째 주 화요일)	장소 미정	
암 환자 음악 요법	•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통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내 혈압을 부탁해 (고혈압)	• 고혈압 관련 내용 30분 강의 • 고혈압 식단 1시간 실습 – 심뇌혈관질환센터 교육전문영양사 전하나	2월 9일(금) 오전 10시 ~ 오후 12시	송도보건지소 2층 영양실습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42
당뇨병은 먹으면 안되나요? (당뇨병)	• 당뇨병 관련 내용 30분 강의 • 당뇨병 식단 1시간 실습 – 심뇌혈관질환센터 교육전문영양사 전하나	3월 9일(금) 오전 10시 ~ 오후 12시	송도보건지소 2층 영양실습실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2018. 2. 1 현재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890-359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전체 진료과 토요일 오전 진료합니다. 각 진료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오전	진료요일 오후	비고
심혈관센터 (☎2200 2440) 심장내과	권 준	심부전(허혈성 또는 비허혈성 심근증, 판막 질환),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질환	수, 목	월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우성일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 중재시술	월, 화	월, 목	
	신성희	심장 질환, 심부전(허혈성 또는 비허혈성 심근증), 판막질환, 협심증, 심장 초음파	화, 목	수	
	박상돈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고혈압	월, 수	수, 금	
	권성우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및 말초동맥질환 중재시술	목, 금	화, 목	
	백용수	부정맥 (부정맥, 빈맥, 서맥, 심방세동, 돌연심장마비, 실신, 심박동기, 제세동기), 부정맥 전극도자절제술, 심장박동기,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화, 수	화, 금	
	장지훈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금	
	이만종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금		
흉부외과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대동맥질환		화	
	김정택	성인심장 혈관외과, 일반흉부질환	수		
	강철웅	심장질환, 혈관질환		월, 금	
소화기내과 (☎2224)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 · 대장질환	월, 목	목	내시경센터 (☎2540~1)
	김형길	소화관암(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수	월, 수	
	이돈행	담도, 췌장질환, 위 · 대장내시경	화		
	권계숙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역류성 식도질환, 변비	수, 금	화	
	이진우	간암, 간경변증, 간염, 간이식, 지방간 클리닉	화, 수, 목(◆)		◆간암클리닉 : 간암환자만
	정 석	췌장·담도 질환,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담석질환, 췌장염	월, 금	화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진영주	간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화, 목	월	
호흡기내과 (☎2216)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금	■폐암센터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목(1,3주)	( ) : 주별진료 (초진만)
	류정선	폐암, 폐결절, 항암화학치료, 맞춤치료, 흉막질환	월, (화■), (목■)	(월■)	
	조재화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화, (수■), (금■)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금■)	수	
폐암센터 (☎3890)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종양	금		
	곽승민	폐종양	수		
	류정선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화, 목	월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금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금		
흉부외과	윤용한	폐종양	화, 목		
	김영삼	폐종양	수	금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남문석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월, 화, 목	화	
	홍성빈	갑상선, 골다공증, 부갑상상선질환, 내분비희귀질환	목, 금	월, 수	
	김소헌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월, 수, 금	화	
	안성희	갑상선, 부신, 골다공증, 기타 내분비질환	화, 수	월, 목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월, 수	목, 금	
비만센터 (☎3360, 2215) 외과	허윤석	비만 · 당뇨 · 위수술(고도비만수술)	화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금*	*소아과 외래에서 오후 진료 : 14:00~16:00
가정의학과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목	목	가정의학과 외래진료
	오정민	비만	목	목	
신장내과 (☎2229)	김문재	신장질환,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화, 목	월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금	화, 수, 금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월, 수, 금	목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목	월,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신장이식클리닉 (KTC) 신장내과	김문재	신장이식	수		08:30~09:00
	황선덕	신장이식		화	
외과	박근명	신장이식	금	화	금(11~12시), 화(13~14시)
복막투석클리닉 (PDC) (☎2535)	김문재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월	
	이승우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목	
	송준호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수	13:00~15:00
	황선덕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화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오전	진료요일 오후	비고
혈액종양내과 (☎2199)	이문희	암 진단, 항암 치료[유방암, 위암, 대장암, 여성암(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완화의료	수, 목	월, 목	
	임주한	항암 화학요법, 종양내과[소화기암(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육종, 유방암, 기타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완화의료]	화, 금	화, 금	친자확인(HO)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월, 수	수, 목	
	HPCC	호스피스완화의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HPCC : 이문희, 임주환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목	월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금	수	
	권혜윤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목	금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월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목, 금	화	
	임미진	관절질환, 자가면역질환(관절염, 통풍, 혈관염)	월, 목	월, 수, 금	
	정경희	관절염, 자가면역질환(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전신성 경화증)	화, 수, 금	화, 목	
알레르기내과 (☎2217)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르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화, 목	
	일 반	알레르기 질환	수		
임상약리학과 (☎1124)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수, 금		정석빌딩 1층
	조상헌	임상약리학/초기임상시험	목		임상시험센터내
정신건강의학과 (☎3880)	이정섭	ADHD, 틱장애, 학습 · 주의력 · 언어	월, 화	화, 목	조기우울병/조기정신병클리닉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수, 목	월, 목(▲)	학습장애클리닉/청소년:고3까지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월, 목	화, 수, 목(★)	▲치매조기검진클리닉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수, 금	월, 목	★유방갑상선외과 □상담실
	김희연	성인·소아정신과	금	월,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화	만18세까지 소아과진료
	임대현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화, 금	월, 수	
	김정희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월, 수, 금	목	
	권영세	소아신경[뇌전증(간질), 두통, 신경]	월, 금	화(▣), 목	▣희귀유전질환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수, 목(▣)	월, 목, 금(★)	★비만센터진료 14:00~16:00
	이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수, 금	
	일 반	일반 소아진료, 예방접종 및 육아상담	월, 화(◇)	목, 금	◇예방접종, 육아상담 클리닉
뇌신경센터 (☎2370 2375) 신경과	나정호	뇌졸중, 뇌혈관질환, 뇌경색, 두통		목(■)	△운동장애클리닉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두통클리닉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화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목, 금	월, 목(★)	★수면클리닉
	윤혜원	뇌졸중, 치매	목		
	최석진	근신경계질환, 말초신경질환, 파킨슨병	수	화, 수, 금	
	일 반			수, 금	
신경외과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 금	수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목		
	심유식	해외연수(2017. 9. 1 ~ 2018. 8. 31)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화	금	
뇌혈관센터 (☎3860 3865) 신경과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수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금	화(●)	●뇌졸중클리닉
	윤혜원	뇌졸중, 치매	수	목, 금	
신경외과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현동근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맥류, 뇌출혈), 혈관내 중재시술(코일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삽입술), 두부손상	수	월, 수	
	심유식	해외연수(2017. 9. 1 ~ 2018. 8. 31)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화, 목, 금	
재활의학과 (☎2480~1)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수(◇), 금(▣)	수	▣희귀유전질환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금(△)	수(△), 목	◇삼킴장애클리닉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금(■)	월, 화(■), 목(○), 금(☆)	△초음파신경 관절클리닉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화(★), 수(●★)	월(★), 화(◇), 금(★)	○족부클리닉(1,3주) ■척추센터 ☆언어장애 ●어지럼증클리닉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심뇌재활센터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오전	진료요일 오후	비고
심뇌재활센터 (☎2480)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화, 수	월, 금	
	일 반	일반재활	화, 목	월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평생 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월(◆), 수(◆), 금	◆건진센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목(△), 금	목(△)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조세욱	건강검진, 노인의학(노인 만성통증, 노인 약물정리)	화(◆), 목(◆)	화(◆), 목(◆)	
	오정민	일반진료	목	목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외 과 (☎2250)	신석환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월	
	홍기천	혈관이식외과(복부 대동맥류, 동맥 폐색, 심부정맥 혈전증, 하지 정맥류)	수, 목	월	2층 혈관외과
	안승익	간담췌외과, 이식외과(담석증, 간암, 췌장암, 담도암, 간이식)	화, 목	화	
	김세중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유방 · 갑상선외과센터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허윤석	위암, 고도비만수술, 소화성궤양, 기질종양	화(★)	화, 목	★비만센터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대장절제술, 치질, 치루, 치열 등 대장항문질환	월, 목, 금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최윤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화, 수	금	
	신우영	해외연수(2017. 3. 1 ~ 2018. 2. 28)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신장이식(동정맥류, 하지정맥류, 당뇨족, 하지통증, 하지궤양)	화, 금(●)	화(●), 화, 금	●신장이식클리닉 2층 혈관외과
	박신영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수	월, 목	
	홍신호	혈관이식외과		수, 목*	*2층 혈관외과
	김진민	간담도외과, 일반외과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유방갑상선외과센터 (☎2560~1) 외과	김세중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박신영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영상의학과	김우철	유방방사선학		월, 수, 금	
	구유진	유방·갑상선 초음파	월, 화, 수, 목, 금	화(■), 목	■맘모톰 시술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흉부외과 (☎2280)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대동맥질환	화	화, 목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월, 수		
	윤용한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화, 목	목	
	김영삼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수	수, 금	
	강철웅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월	
	일반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혈관외과 (☎2166) 외과	홍기천	혈관이식외과	수, 목	월	2층 혈관외과
	박근명	혈관이식외과	화	화, 금	
	홍신호	혈관이식외과		목	
흉부외과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대동맥질환		목	
	김정택	심장, 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월	수	
	강철웅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정형외과 (☎2380)	문경호	인공고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월, 수	수	
	강준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월, 수	월	
	김려섭	스포츠의학(견관절, 슬관절, 주관절, 관절경), 관절염	화, 목	목	
	조규정	척추질환 :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척추 골절	월(◆), 금(◆)	수(◆)	◆척추센터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월, 목, 금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수	수, 금	
	권대규	해외연수(2017. 9. 1 ~ 2018. 8. 31)			
	박재우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수(◆)	월(◆), 목(◆)	
	신병기	슬관절, 견관절		금	
	일 반	일반정형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오후 2시부터 진료
척추센터 (☎2619) 정형외과	조규정	척추질환 :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척추 골절	월, 금	수	
	박재우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수	월, 목	
신경외과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화, 목	화	
	류달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척수 외상, 척추 골절	수	월, 금	
	신제임스키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화	목	
재활의학과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금	화	
	일 반	일반재활	화, 목	월	
비뇨의학과 (☎2360)	서준규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수	수	
	박원희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화, 목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월	월, 목	
	성도환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이 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금	화, 목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목	월, 수	
	강동혁	종양, 전립선, 결석, 내비뇨기과학	수	화, 금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오전	진료요일 오후	비고
성형외과 (☎3870)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화, 목	화	
	기세휘	유방성형, 유방재건, 선천기형(손, 발, 귀), 미세현미경 이용한 수지접합, 조직재건(상하지, 몸통, 당뇨발), 미용성형(흉터성형, 레이저, 보톡스)	월, 수	목	
	이상환	피부종양, 필러, 보톡스, 레이저, 지방흡입, 수지접합 및 재건, 하지재건, 미용성형수술, 당뇨발, 욕창	금	월,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산부인과 (☎2270)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수, 금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화(□), 목	월, 화	□정밀 초음파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안과 (☎2400)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월, 목	화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월, 목	
	강성모	소아안과, 성형안과, 사시, 약시	월	수, 목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화, 금	월	
	정지원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화, 목	금	렌즈클리닉(매월 둘째주 토요일)
	윤명헌	망막, 유리체		수, 금	
	일 반		수, 금	화	
안과레이져	EYAL	레이저클리닉	금	수, 목, 금	
이비인후과 (☎2420~1)	장태영	비과,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수, 목	월	
	김규성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월, 수	수(■)	■어지럼증클리닉
	김영효	알레르기비염,코골이·수면무호흡,비중격축농증,편도,소아이비인후과		화, 수, 목	
	최정석	무통증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보청기	화, 금	월, 금(★)	★보청클리닉
	김지원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치과 (☎2470)	김일규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목	
	조가영	보존과(근관치료, 보존치료, 치아외상, 심미수복, 미세현미경치료)	화, 수, 목, 금	화, 수, 금	
	조현영	구강악안면외과	화, 수	월, 화, 수,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피부과 (☎2230)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건선, 레이저	월, 화, 목(■), 금	화(▲), 목	■탈모 및 모발이식 ▲피부레이저클리닉
	신정현	색소질환,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홍조, 피부병리, 피부미용	수, 금	월(◀), 화, 수(●), 금(♠)	★혈관레이저클리닉 ◀여드름홍조클리닉(2, 4주)
	변지원	피부암(피부 양성 종양 및 악성 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 흉터, 여드름, 피부과 전반적인 질환	월(◆), 목, 금(▲)	월(◆), 목(★), 금	●피부노화 ♠피부미용색소
	일 반		월, 화, 수	월, 화, 수, 목	◆피부암/미용외과
영상의학과 (☎2740~3)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월, 수, 목	월, 수	
	전용선	중재적 영상의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뇌종양, 소화기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사이버나이프센터 (☎3076)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뇌종양, 소화기암	수	월	
신경외과	박현선	뇌종양, 뇌혈관기형	수		
직업환경의학과 (☎2861)	임종한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엽제		화, 목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김환철	뇌, 심혈관질환평가 및 관리, 업무적합성평가, 업무관련성평가		수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월, 목	월, 목	
핵의학과(☎3160)	현인영	해외연수(2017. 3. 1 ~ 2018. 2. 28)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월, 수, 목	월, 수, 목	
통증센터 (☎3921)	차영덕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김병건	통증치료	화, 목	화, 수, 목	
국제진료센터(☎2301)	박흥재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신경외과 (☎2370)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 금(★)	수(★)	★뇌신경센터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수(●), 목(★)	월(●), 수(●)	◆척추센터
	윤승환	척추,척수,디스크질환,척추측만증, 척추종양	화(◆), 목(◆)	화(◆)	●뇌혈관센터
	심유식	해외연수(2017. 9. 1 ~ 2018. 8. 31)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화(★)	화(●), 목(●), 금(★●)	
	류달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척수 외상, 척추 골절	수(◆)	월(◆), 금(◆)	
	신제임스키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화(◆)	목(◆)	
신경과 (☎3860)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뇌신경센터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수(●)	△운동장애클리닉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화(★), 금(●)	화(●○)	●뇌혈관센터 ○뇌졸중클리닉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목(★), 금(★)	월(★), 목(▲)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윤혜원	뇌졸중, 치매	수(●), 목(★)	목(●), 금(●)	▲수면클리닉
	최석진	근신경계질환, 말초신경질환, 파킨슨병	수(★)	화(★), 수(★), 금(★)	■신경근(육)질환클리닉
	일 반			금	만15세이상 진료가능

인하대병원 암진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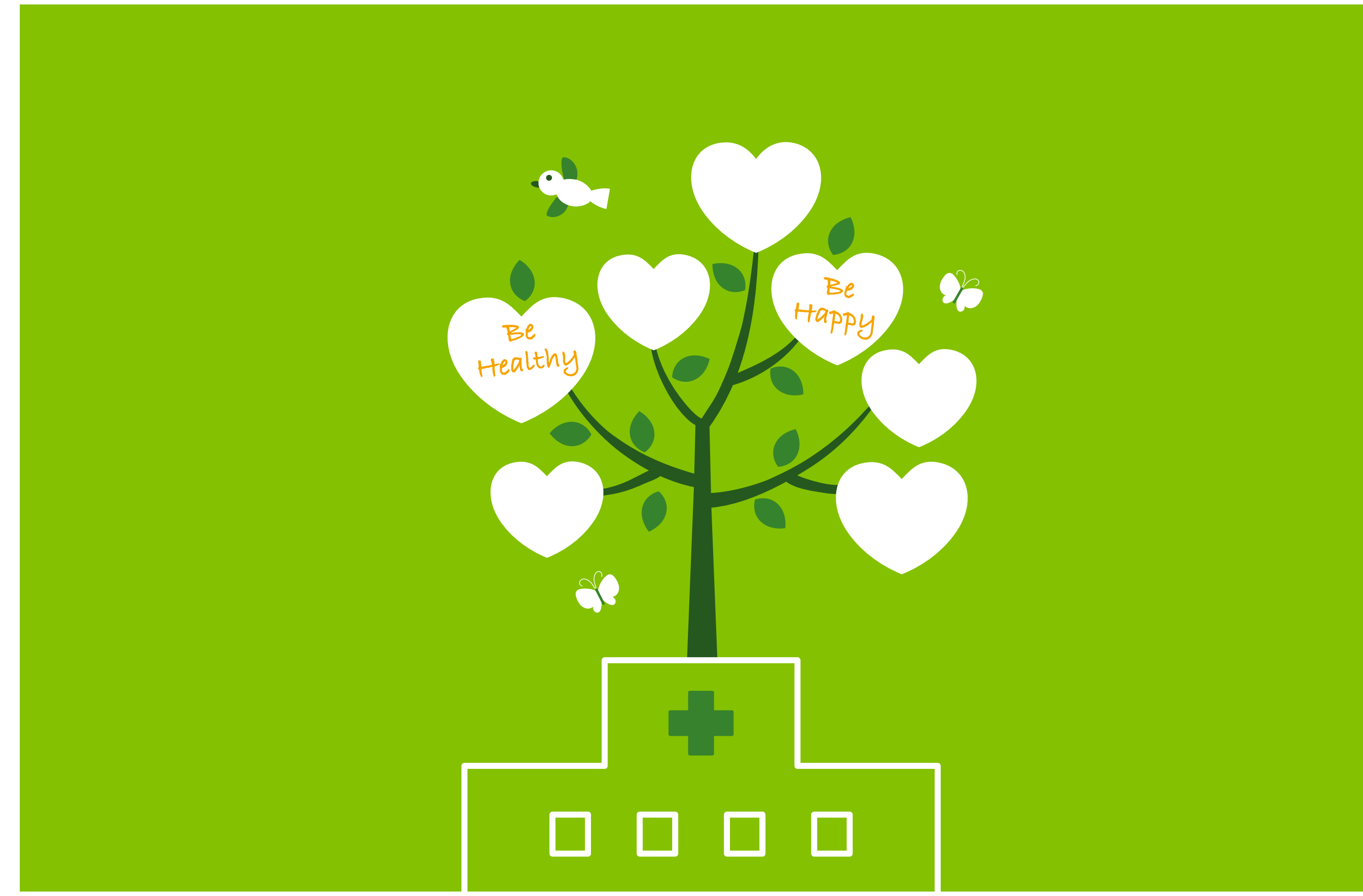
2018. 2. 1 현재

암통합지원센터 : (032)890-3600, 3767, 3768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오전	진료요일 오후	비고
위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신용운	위암,대장암,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서비스진료
		김형길	위암,대장암,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수	
		권계숙	위암,대장암,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방병욱	위암,대장암,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외과	신석환	위암,소화기외과	월, 목	월	
		허윤석	위암,소화성 궤양		화, 목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대장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신용운	대장암,위암,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서비스진료
		김형길	대장암,위암,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수	
		권계숙	대장암,위암,소화기질환,변비클리닉	수, 금	화	
		방병욱	위암,대장암,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외과	최선근	대장암(결장암,직장암,항문암), 소화기외과,대장항문	월, 목, 금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간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이진우	간암클리닉,간염,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진영주	간암,만성간염,알코올성간질환,지방간	월	화, 수, 금	
	외과	안승익	췌장암,담도암,간담췌외과,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이건영	간담도외과,이식외과	금	수	
		신우영	해외연수(2017. 3. 1 ~ 2018. 2. 28)			
	종양내과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췌·담도계암	소화기내과(소화기센터)	이돈행	담도,췌장질환,위·대장내시경	화		
		정 석	췌장암,담도암,담낭암, 췌장·담도질환,담석질환,췌장염	월, 금	화	
	외과	안승익	췌장암,담도암,간담췌외과,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이건영	간담도외과,이식외과	금	수	
		신우영	해외연수(2017. 3. 1 ~ 2018. 2. 28)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종양,호흡기질환,만성폐질환	금		
		곽승민	폐종양,호흡기질환,만성폐질환	수		
		류정선	폐종양,호흡기질환,만성폐질환	화, 목	월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금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요일 오후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식도암	화, 목		
		김영삼	폐암,식도암,흉선암	(수■)	(금■)	
	종양내과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흉부관련암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식도암	목	월, 목	
		김영삼	폐암,식도암,흉선암	(수■)	수, (금■)	
	종양내과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혈액암	혈액내과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혈액,종양,내분비,비만,성장	수,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오전	진료요일 오후	비고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갑상선,당뇨병,뇌하수체	월,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홍성빈	갑상선,내분비,골다공증,당뇨병	목, 금	월, 수	
		김소헌	갑상선,당뇨병,내분비,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김세중	내분비외과(갑상선암),유방	수, 금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허민희	유방외과,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화, 금	
	이비인후과	최정석	무통증편도수술,소아이비인후과,갑상선, 두경부종양,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해외연수(~2018. 2. 28)		
	방사선종양학과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유방암	외과	김세중	유방,내분비외과	(수▣), (금▣)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허민희	유방외과,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수, 금	
		황성욱	종양학,복강경	월, 화	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 월 오후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비뇨기암	비뇨의학과	박원희	종양,전립선질환,요실금	화, 목		
		윤상민	종양,결석,신이식	월	월, 목	
		이 택	전립선,종양,결석	금	화, 목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두경부종양,무통증편도수술,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종양내과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종양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진료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명옥	척추손상,언어장애,발통증,의지보조기	목	월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조갑질환,탈모	월, 화, 금	목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색소질환,피부미용	수, 금	월(1,3,5주), 화	( ) : 주별 진료
		변지원	피부암(악성 종양),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피부노화,흉터	목	금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종양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뇌신경외과,안면경련,3차신경통	월(▲), 금	수	▲뇌종양,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클리닉
		박현선	뇌종양(사이버나이프),뇌암,전이성종양,뇌동맥류, 안면경련,경동맥협관증,모야모야병,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척추,척수,디스크질환	화, 목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연부육종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골종양,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슬관절),관절염	월, 수	월	
		이동주	종양,상지,수부,관절염	월, 목, 금		
		권대규	해외연수(2017. 9. 1 ~ 2018. 8. 31)			
	종양내과	임주한	종양학,혈액학	화, 금	화, 금	
		조진현	혈액학,종양학,골수이식	월,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헌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기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해주신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_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② **납부방법**_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 인하대병원)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 15일, 25일).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정석빌딩 B동 802호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문의사항**_ 궁금하신 내용은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1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인하대병원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병문안 문화개선

멀리서도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병문안 가능 시간,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구 분		면회가능시간	비 고
일반병실	평일 (1회)	18:00 ~ 20:00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 수, 토, 일, 공휴일 10:00 ~ 20:00 (직계가족 3인까지만 가능)
	주말 (2회)	10:00 ~ 12:00	
		18:00 ~ 20:00	
집중 치료실	내과계 / 심혈관계	12:00 ~ 12:20	1일 2회 20분간, 1회 면회 시 최대 인원수를 5인으로 제한
		19:00 ~ 19:20	
	외과계 / 응급전용 (A·B)	12:40 ~ 13:00	
		19:40 ~ 20:00	
응급의료센터		응급원무과에서 보호자 출입증 수령 후 진료구역 출입 가능 (단, 소생실은 출입 불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13:00 ~ 13:30	면회객은 부모로 제한
		19:00 ~ 19:30	

- 정해진 면회시간 외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보호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면회 인원이 많은 경우,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병실 밖 면회 라운지(지하 1층, 본관 3층)를 이용해 주십시오.

병문안 에티켓 안내

병동 내 모든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에티켓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안 시간 준수

병문안은 조용히

음식물, 꽃 등 반입 금지

단체 병문안 금지

거동 가능 시
B1 면회라운지 이용

병문안 전후
손씻기